

“궁홀히 여기는 자는 행복하다.”



## 마음열기

### 용서받지 못할 남자

- 머리카락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머릿속에 든 게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 귀 뚫은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귀가 꽉 막힌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 눈이 단추만 해서 쌍꺼풀 수술을 한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노출이 심한 여자만 보면 눈이 당구공처럼 커지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 밥 많이 먹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반찬 투정하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 월급이 적은 것은 봐줄 수 있어도 아내 몰래 비자금 만드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 무능해서 진급하지 못하는 건 용서할 수 있어도 아내 몰래 직장 옮기는 건 용서할 수 없다.

(주의 : 웃자고 하는 내용이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의 글 중 가장 공감이 가는 내용이 있거나 동의 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재미있게(^^) 서로 나누어 보세요.



## 나눔

1. 아래 성경을 읽고 다음 질문들에 대해 서로 나누어 보세요.

### 마태복음 18:21-35

21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22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23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24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25값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26그 종이 엮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27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8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빛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빛을 갚으라 하매  
 29그 동료가 엮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30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빛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31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32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빛을 전부 탕감  
 하여 주었거늘  
 33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4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 본문에서 예수님과 베드로는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고, 그 주제에 대한 예수님의 철학은 어떤 것 입니까?(21-22절)

☞ 본문 무자비한 종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읽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서로 나누어 보세요.

주인과 만 달란트 빛진 자	
만 달란트 빛진자와 백 데나리온 빛진 자	

☞ 예수님은 본문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33절) 33절의 내용을 당신의 삶에 적용해서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 서로 나누어 보세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에게 모욕을 주고, 고통을 주고, 피를 흘리게 했고,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외적이고 독선적이며 이기적인 무리에 맞서 긍휼이 그저 인간의 가장 진부한 성품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현재를 살아가는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우리 사회에서 긍휼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라. 그러면 그가 네 목을 짓밟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를 나도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말이죠.

만약 우리가 우리 이웃들의 나를 향한 잘못을 용서할 수가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용서의 감격을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장에서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크신 마음으로부터 긍휼과 은혜를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 기도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찢어 놓았던 사람을 만나게 되면 다시 한 번 그를 바라보라. 그리고 그의 얼굴을 바라볼 때 거기서 당신은 용서하셨던 그분의 얼굴을 보라. 당신이 자비를 구할 때 눈물을 글썽이시던 그 왕의 눈동자를 바라보라. 아무도 당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때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라. 당신의 원수의 얼굴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분량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당신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당신의 원수를 –그리고 당신 자신을 – 자유롭게 보내라.

맥스 루케이도의 팔복 중